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세자릿수'... 확산세 심각

전날 116명·전주서만 73명... 김승수 시장, 담화문 통해 백신접종·일상멈춤 호소
시, 위중증 환자 전담병원에 대안병원까지 확대... 완주서 오미크론 확진자 3명 추가

전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16명이 추가 발생 도내 누적 확진자는 7,503명으로 늘었다
전북은 지난 주말 이들 새 169명이 확진된데 이어 13일 하루 동안 1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확진자는 전주에서 73명, 익산 10명, 군산 9명, 김제 6명, 고창 6명, 정읍 3명, 부안 3명, 진안 2명, 남원과 완주, 임실, 순창에서 각각 1명 등 116명이 확진됐다.
전주에서 이날 하루에만 73명이 확진돼 일일 최대 확진자를 기록, 가파른 확산세를 보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4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연말 시작 모임 자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연말 시작 모임 자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김승수 시장은 14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약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유행상황과 근접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직장 가족 지인 등을 통한 일상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3차 예방접종을 추가접종이 아닌 기본접종으로 인식해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면서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위해 연말 이동,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증명·안심확인제 등 방역패스도 꼭 실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기 위해 위중증 환자 전담병원을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등 3개소에서 대안병원까지 4개소로 확대해 13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면서 "제택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택 치료전담반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인력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는 전날 하루에만 역대 최대인 7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서관과 문화의집,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을 15일부터 중지하는 한편, 시가 주관하는 대면 행사도 취소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답답하고 힘드셨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고비를 넘어 가야 다가오는 새해에 악화될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

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또 3명 추가됐다. 이로써 오미크론 확진자는 27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10일 오미크론 첫 확진자(전북 6691번·지표환자)가 나온 후 12일 5명, 13일 19명, 14일 3명 등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추가 통보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완주의 한 어린이집의 원생(2명)과 원생의 가족(1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후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해왔다.
3명이 추가되면서 오미크론 확진자는 총 27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어린이집을 매개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이곳의 종사자 2명과 원생 7명, 원생의 가족 14명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또 지표환자와 연결된다.
/김윤상 기자·완주=이준복 기자



전북도는 진안군 쇠집계로에 위치한 '진안소방서 가 송하진 도지사 등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주민 안전 위해 출동준비 완료'

진안소방서 개청... 119구조대 진안군에 편성

진안소방서가 본격 업무에 돌입하며, 도내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하나씩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도는 진안군 쇠집계로에 위치한 '진안소방서'가 도지사, 도의원, 진안군수 등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진안지역은 장수군에 있는 무진장소방서의 관할로 돼 있었다. 지난 2월 10일 진안지역을 전담하는 진안소방서가 업무를 시작했다.

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에 개청식을 거리두기 단계 및 접종 완료율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 진안소방서는 도비 71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9년 3월 착공했으며 5,566㎡ 부지에 연면적 2,732㎡(지상 3층) 규모로 차고, 사무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갖췄다. 조치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현장대응단 등 2과 1단 7팀으로 구성됐으며, 출동부서는 119구조대 1

개소, 119안전센터 2개소, 119지역대 4개소로 편성됐다.
특히,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119구조대가 진안군에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용인력은 소방공무원 154명, 의용소방대 452명, 공무원 1명이며, 소방 장비는 펌프차 7, 구급차 4, 물탱크차 1, 사다리차 1, 구조차 2, 지휘차 1, 기타 차량 6대 등 22대다.
한편, 전북도는 소방서 미설치 2개소(주, 임실)에 대해서도, 모든 도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까지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제주 서귀포 서남서쪽 4.9 규모 지진 발생

전북지역은 현재까지 피해보고·유감신고 없어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반경 50km 이내 발생한 지진 가운데 16년 만에 최대 규모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9분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3.03도, 동경 126.1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km다.
이날 지진은 오후 5시19분14초 발생해 마라도에서 발생한지 4초 후에 최초로 관측됐다.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관측 후 12초 만에 작동했다.
지역별 계기진도는 제주5, 전남 3, 경남과 광주, 전북이 2다.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다.
유감신고 현황은 이날 오후 5시14분까지 제주 50여건, 전남 27건, 광주 4건, 대전 2건, 부산 2건, 서울 2건이다. 대형히 전북에서는 피해보고 및 유감신고는 없었다.
이날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1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진앙반경 50km 이내 발생한 지진 가운데 2005년 6월15일 제주 제주시 고산남쪽 26km 해역에서 발생한 3.9 규모 지진 이후 가장 크다. 한편 기상청은 애초 이날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규모 4.9의 지진이라고 하향 조정했다. /유호상 기자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고선박 난파 흔적 확인

고려청자 등 유물 200여점 발견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가 2021년 고군산군도 해역 일원에 대한 수중문화재 탐사를 통해 난파된 고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중 유적을 확인했다.
이번에 확인된 유적은 작년에 접수된 수중문화재 발견신고를 토대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올해 60여 일간 고군산군도 해역을 조사해 그 존재를 파악한 곳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곳에서 고려청자 125점, 분청사기 9점, 백자 49점, 닻돌 3점 등 200점 가량의 유물을 발견했다.
81점의 청자발과 접시가 다발로 포개진 선적 화물형태로 확인됐다.
또한, 난파될 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로 만든 닻과 노 닻돌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 여러 점의 선구(船具, 배에서 쓰는 기구)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보아 조사 해역 인근에서 고선박이 난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 선박 정박지나 피항지로 이용됐던 해역은 한계만에 많은 배들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했다. 고선박 4척과 3,000여점의 유물이 확인된 태안 마도 해역도 안흥링을 통과하는 배들의 정박지였음을 참고해 볼 때, 이번 조사해역 역시 같은 용도로



청자다발을 수습하고 있는 수중조사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872년 만경현에서 제작한 '고군산진 지도'에서 이 해역을 조운선을 비롯해 바람을 피하거나 바람을 기다리는 선박들이 머무는 곳이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그러한 추정 근거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조사 해역 내 선유도는 '선화봉사교려도경'에 그려져 오는 사진이 목았던 객관(客館)인 군산정이 있었던 곳으로, 과거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선박들의 중간 기착지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고선박과 관련 유물의 확인을 위해 2022년 고군산군도해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통산 9번째 우승! K리그 사상 최초 5연패!
지칠 줄 모르는 승리의 기록,
여러분 덕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전례 없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우승의 신기록을 써 내려가는 전북현대모터스와 전주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현대차 전주공장까지, 언제나 지금처럼 현대자동차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행미언 셀러브레이션 이벤트]
현대자동차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하여 구매 상담 및 견적 상담을 진행하신 고객분들께 '행미언 셀러브레이션 기념 머플러'를 드립니다.
※ 중정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1일 중 별도 배분)
※ 본 이벤트는 전라북도 관내 지점 및 대리점에 한해 진행됩니다.

HYUNDAI Official Partner JEONBUK FC